## 하노버 CeBIT 2004 참가 중소업체 큰 성과 올려

- 상담액 9억 5천만불, 계약액 2억불 초과
- LCD TV/모니터, 다기능 MP3 Player,멀티미디어 셋톱박스,CPU/VGA Cooler 등 많은 실적 거두어

한국전자산업진흥회(EIAK)는 지난 18일부터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빗 2004'에 국내 중소기업 82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공동관을 마련하여 참가했는데 총 7만여명의 바이어가 다녀갔고 총 500여건의 상담건수에 9억 5,000만달러의 상담액과 2억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잘만테크의 CPU쿨러·VGA쿨러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고 아이에스서플라이의 서버용 쿨러인 서머콘에 바이어들이 몰려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또 컴아트시스템의 TV스테이션, 한국스프라이트의 무선 홈시어터, 아인텍정보의 디지털어학학습기, 멀티채널랩스의 MP3플레이어 등이 인기를 끌었다.

TFT LCD 모니터를 선보인 데이터뷰와 홈페이지 자동생성 툴을 선보인 우리랑 월드, 화상회의 솔루션을 선보인 리릭미디어등의 업체는 가시적 계약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한국관에서는 GPS 수신기 및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판서용 모니터 e펜 데스크, 화상 e러닝 솔루션), 멀티미디어관련 소프트웨어, 보안관련 솔루션(지문인증 마우스, 홍채인식기)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EIAK의 김규완 팀장은 "올해에는 순수 바이어의 방문이 늘어나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전년도에 비해 규모면에서 참가기업수가 1.6배 늘었을 뿐 아니라(2003년 51 개사→2004년 81개사) 방문 바이어수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03년 4만명→2004년 7만명)

둘째,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경쟁국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컨버전스 관련 제품 및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 등 경쟁력 있는 다수 제품을 출시한 데에 기인하고

셋째, 사전 바이어 발굴 및 초청, 현장 바이어 미팅 알선을 통한 상담효과를 극대화했기때문이다.

또한, 한국관 홍보 영자신문 발간 및 무역관을 통한 한국관 알리기 등 전시회에 대비한 사전 마케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시기간 동안 한국관을 찾은 내방객은 약 7만명으로 바이어만 약 8,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상담 및 계약실적으로 보면 독일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북유럽 바이어들과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동,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비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전시회 기간동안 좋은 성과를 낸 품목을 보면 DVR, DVD Player, 무선 홈씨어터제품, 다기능 MP3 Player, 멀티미디어 셋톱박스, CPU/VGA Cooler, LCD TV, 무선 디지털 마우스 등이 가장 많은 계약실적을 올렸고 이밖에도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비롯하여 USB Flash Memory Drive, 무 선스피커, GPS, 모바일 POS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컴퓨터케이스 등도 좋은 성과를냈으며 한편 인터넷기반 VoIP폰, 블루투스 관련 제품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EIAK)는 내년도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올해와 같거나 확대된 규모로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할 계획이다.

## 전자산업계 친환경 경영 순회 교육 성황

내년부터 EU가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과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시행하는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와 산업자원부, 국가청정지원센터가 전자산업계의 환경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환경경영 기법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친환경 경영 순회교육'에 나섰다.

지방 순회교육에 앞서 서울 구로동 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04년도 전자산업 환경경영교육'에 5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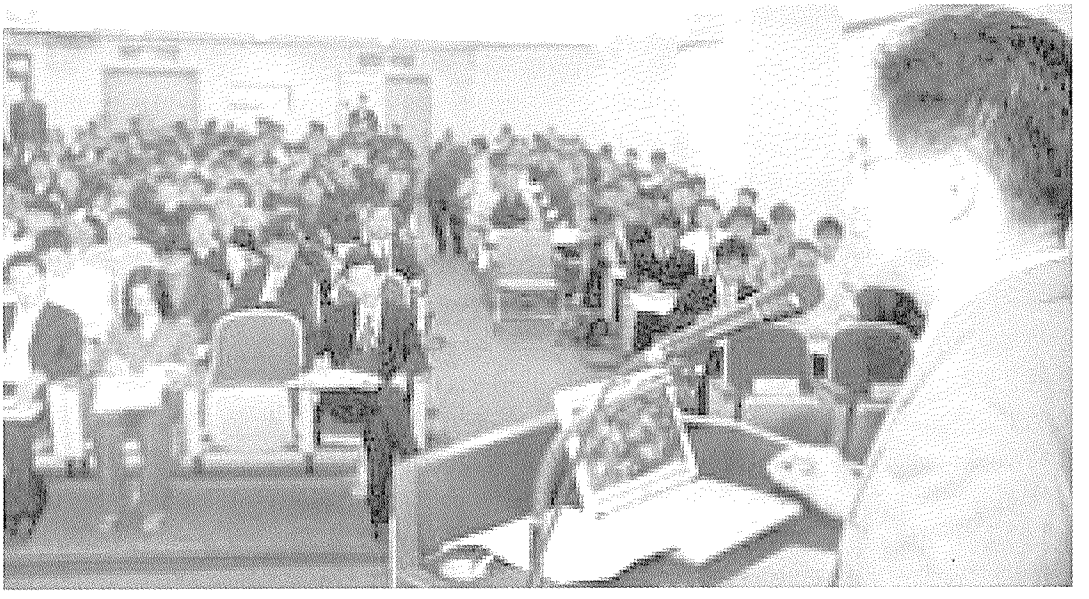
## 완성품업계 국산 IT부품 채택 증가

완성품업계들이 전자정보통신기기관련 국산 부품 채택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http://www.eiak.org)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이트로닉스·삼보컴퓨터·휴맥스·텔슨전자 등 주요 완성품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2004년 전자부품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국산부품 채택률(구입금액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한 62.4%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대폰의 국산부품 채택률은 지난 2002년 38.2%였으나 지난해 56.1%로 뛰어오른 데 이어 올해는 58.6%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자산업진흥회측은 "국산 부품 채택률 증가는 그동안 전자부품업체들이 △리튬이온 전지 등 2차전지 △표면탄성파(SAW)필터 등 고주파부품 △적층세라믹콘덴스(MLCC) 등 칩 부품 △ LCD, 유기EL 등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키워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휴대폰 외에도 LCD 및 CRT 모니터가 지난해의 75.4%에서 82.7%로 늘어났고 프린터는 65.5%에서 74.0%로, 캠코더는 61%에서 80.8%로, 오디오는 42.6%에서 65.5%로 향상됐다.

또한 냉장고(96.1%), 청소기(93.6%), 전자레인지(88.3%), 세탁기(87.9%) 등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생활가전 제품의 경우 국산 부품 채택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를 지향하는 초대형 전시회가 탄생한다.